

'연극 장수상회'가 고창에!

26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서 명품배우 신구·손숙 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배우 신구, 손숙 주연의 연극 '장수상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선보인다.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작인 연극 '장수상회'는 강계규 감독의 동명 영화를 연극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서울, 성남, 제주 등 20여개 지역에서 공연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치매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따뜻하고 애뜻한 가족애로 풀어내고 있으며, 까칠한 노인사 김성철과 소녀 같은 꽃집 여인 '임금님'의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사랑 앞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소년, 소녀가 되는 연애 초보들의 설렘 가득한 모습은 영화보다 더 큰 사랑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수상회 점장 '김성철' 역은 연극무대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며 국민 꽃할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신구가 맡아 열연한다.

극중 김성철은 평생 독심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꽃집 사장 '임금님'을 만나 사랑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까칠한 연애초보 노인사다.

신구는 이번 작품을 통해 가슴 따뜻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이며,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할 계획이다.

소녀처럼 수줍음이 많지만 사랑 앞에서는 당찬 꽃집 여사장 '임금님' 역은 배우 손숙이 맡는다.

연극 <사랑별곡>, <세 여자 이야기>, <세일즈맨의 죽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온 배우 손숙은 이번 작품을 통해 꾸밈없고 사랑스러운 '임금님'을 연기한다.

이 외에도 탄탄한 연기력으로 무장한 이원재, 윤영민, 이아영, 김태환, 구옥분 젊은 배우들의 캐스팅도 눈길을 끈다.

군 관계자는 "부부, 연인, 부모님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이번 공연은 설렘 가득한 로맨스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청자박물관, '청자야 놀자' 작은 음악회

부안청자박물관은 오는 28~29일과 내달 3~5일 오후 2시 박물관 1층 특설무대에서 총 5회에 걸쳐 제3회 '청자야 놀자!' 작은 음악회를 연다.

올해로 세번째 개최되는 이번 작은 음악회는 한여름 휴가철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신명나는 볼거리와 추억을 선물하고자 준비했다.

'뛰어놀자', '보고놀자', '치고놀자', '함께놀자', '듣고놀자', '신나게놀자'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는 신비한 미술쇼, 타악 퍼포먼스와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하나 돼 한여름 정물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연은 오색 꽃풍선 청자모형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양파 같은 매력을 가진 타악군단 '조이폴'의 신나는 퍼포먼스 및 재치 있는 구성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난타쇼와 미술사 김기훈씨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 속의 그림 같은 신비한 미술쇼 등을 펼쳐 관람객에게

스트레스와 숨겨왔던 끼를 만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부안청자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작은 음악회

회를 통해 천년 세월을 뛰어 넘어 다시 살아 숨쉬는 고려상감청자의 메카인 부안청자박물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람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청자박물관은 오는 28~29일과 내달 3~5일 오후 2시 박물관 1층 특설무대에서 총 5회에 걸쳐 제3회 '청자야 놀자!' 작은 음악회를 연다.

정읍시립국악단 공연,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 봐'

27일 저녁 7시30분부터 태인 피향정 함벽루 앞에서 흥겨운 공연 펼쳐

정읍시립국악단의 상설공연인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달 공연이 오는 27일 저녁 7시30분 태인면 피향정 함벽루 앞에서 펼쳐진다.

이날 국악단은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피향정 연꽃을 배경으로 서정적이면서도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담

긴 단막창극 '사랑가'가 관심을 모은다. 은은한 향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 야경을 배경으로 춘향과 몽룡의 사랑얘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연꽃도 즐기고, 연꽃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좋은 공연도 감상하면서 행복한 시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1회 전북청소년영화캠프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제 '전북청소년영화캠프' 성료

도내 고교생 35명 참가영화 이론부터 제작까지 체험

제11회 전북청소년영화캠프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영상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이 캠프는 전북청소년영화제(2018. 11. 22~24)의 기획 행사로, 전북지역 고등학생 35명이 참가해 영화에 대한 이론부터 실제 영화 제작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첫째 날인 23일 오전 11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 도착해 간단한 캠프 오리엔테이션에서 참여해 캠프 참여 동기 및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개했다. 이어 단편영화제작 기획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시나리오 작성, 촬영 방법, 연기, 편집 기술의 네 과정을 선택형 집중과정으로 네 명의 전문가로부터 배

우고, 저녁식사 후 5개의 모둠이 단편영화 제작회의를 거쳐 시나리오 작성을 한 후 하루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모뎀별 촬영 작업을 하고, 편집 작업 과정을 거친다. 영화캠프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오전 모뎀별 편집을 마무리해 영화를 완성하고, 모뎀이 만든 작품을 시사회를 거쳐 감상 한 후 퇴소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치게 된다.

이번 캠프에서는 전주대 영화방송학과 학생들이 모뎀 별 영화제작 활동을 도우며 영상교육연구회 교사들이 3일 동안 전 과정을 이끌어 간다.

캠프기간에 모뎀별로 제작된 단편작품은 오는 11월 22~24일 진행되는 전북청소년영화제 기간에 공모로 수상된 작품과 함께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통방송 "여름 휴가는 교통특별방송과 함께"

27일부터 휴가 분위기 맞춘 특화방송

TBN전주교통방송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TBN 여름휴가 교통특별방송'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송은 도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하도록 휴가 분위기에 맞춘 특화방송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에 중계차와 통신원, 리포터 등의 방송 인력을 주요 도로에 배치해 프로그램마다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전달 위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편성 프로그램마다 여름 휴가에 맞는 코너를 만들어 장거리 안전운전과 건전한 휴가문화, 피서지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문용호 전북본부장은 "폭염 속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을 위해 이번 교통특별방송을 마련했다"며 "전북 주요 피서지를 찾는 휴가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달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